

저자 :

리처드 잭슨
(RICHARD JACKSON)

토비아스 피터
(TOBIAS PETER)

도전과제에서 부터 기회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은퇴의 미래

대한민국

GAI Global
Aging
Institute

eastspring
investments

동아시아 은퇴 서베이 소개

동아시아 은퇴 서베이는 ‘다년도 세계 고령화 대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에 국제전략연구소(CSIS)에 의해 출범된 본 프로젝트에서는, 전 세계에 걸친 은퇴 시스템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소득 충분성을 유일하게 평가하는 ‘글로벌 고령화 대비 지수’가 발표된 바 있다.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리처드 잭슨(Richard Jackson)이 세계고령화연구소(GAI, Global Aging Institute)를 설립하기 위하여 2014년초에 CSIS를 떠났을 때, 해당 프로젝트 업무 역시 GAI로 이관되어, GAI의 주요 업무가 되었다. 프루덴셜 그룹은 리처드 잭슨과 본 프로젝트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협력해오고 있으며 GAI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정부와 기업은 앞날을 내다보고,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요구를 예측하고자 힘쓰고 있다. 은퇴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 및 기대가 급격한 발전에 따라 변화하면서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노후보장에서 가족의 역할이 축소되는 반면 연금과 개인저축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동아시아 은퇴자는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가? 근로자들은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사람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실제로 어떠한 은퇴제도를 선호할 것인가?

본 2차 동아시아 은퇴 서베이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답해보고자 한다. 2011년 여름에 실시한 제1차 서베이는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대만의 근로자와 은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서베이는 2014년 여름에 실시되었으며, 대상자는 기존 6개국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4개 지역에 더해져 총 10개국의 근로자와 은퇴자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간에 유의미한 차이점이 다수 나타났으나 동아시아 전역 국민에게서 적어도 두 가지 주요 공통점이 발견됐다. 바로 노후에 대한 걱정과 노후를 개선하려는 열망이다.

제1차 서베이 결과는 ‘전통과 현대의 균형; 제1차 동아시아 은퇴 서베이’(Washington, DC: CSIS, 2012)’라는 명칭으로 발표된 바 있다. 제2차 서베이 결과는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 보고서(역경을 기회로: 제2차 동아시아 은퇴 서베이)로 발표되었다. 이뿐 아니라 더 짧은 형태의 국가 연작 보고서 10종으로도 발표되었는데 이 보고서가 그 중 하나이다. 이 모든 보고서들은 보충적인 자료와 함께 세계고령화연구소에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마련한 웹사이트인 gap.globalaginginstitute.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의상 이 보고서에 자주 등장하는 “국가”라는 용어는 서베이를 실시한 10개국(영토 및 경제적으로 구별)을 지칭한다. “국가”라는 용어의 사용은 10개국의 국제법이나 관례에 있어 해당 주권 혹은 국가지위의 판단과는 무관하다.

세계고령화연구소는 특정한 정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서에 담긴 견해들은 순전히 저자(들) 자신의 의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프루덴셜 PLC는, 미국에서 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프루덴셜 금융회사(Prudential Financial, Inc.)와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이 없다.

© 2015 by the Global Aging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세계고령화연구소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영문 리포트에 대한 번역본입니다.

ISBN 978-1-943884-16-2

제2차 동아시아 은퇴
서베이 결과

대한민국

한 국에서 은퇴를 대하는 태도와 기대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은 노인을 부양하는 역할을 했으나 이러한 역할은 연금제도가 아직 공식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훨씬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그 결과, 노후에 대한 한국인들의 불안이 광범위하게 늘어가고 있다. 한편 한국의 출산율은 1.2명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안정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여성 1인당 평균 평생 출산율 2.1명에 훨씬 못 미쳐 한국은 몇 십 년 안에 급격한 고령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비율이 19%에서 40%로 두 배가 넘게 증가하는 2040년에는 국가의 재정 부담과 가족 부담이 둘 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불안정한 한국의 국민연금 시스템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다른 동아시아 몇몇 국가의 연금은 근로자 부담금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적립식인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현 근로자가 현 은퇴자의 급여를 부담하는 부과식으로 운영된다. 2040년에 이르면 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이 국민연금제도가 성립된 1988년보다 6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직면한 정부는, 벌써 두 번이나 연금 지급액을 삭감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시스템은 장기적으로 큰 결손이 예상되며, 이러한 점들이 국민연금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연금혜택을 추가적으로 대규모로 삭감하거나, 아니면 연금보험료를 급속히 인상하거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¹

문제가 만만찮은 만큼 주요 해결안이 이미 많이 마련됐다는 점은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¹ 한국 연금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Neil Howe, Richard Jackson, Keisuke Nakashima, *The Aging of Korea: Demographics and Retirement Policy i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Washington, DC: CSIS, 2007); 과 Seong Sook Kim, "The Republic of Korea: Pension System Overview and Reform Directions," in *Pension Systems and Old-Age Income Support in East and Southeast Asia: Overview and Reform Directions*, ed. Donghyun Park (Manila, Asian Development Bank, 2011).

서베이 개요

대한민국

현재 은퇴 후 삶 현황

현재 시점에서 은퇴자의 현실

60세 이전 은퇴비율	66
성인이 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 ¹	23
성인이 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비율 ²	17
국가연금시스템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비율 ³	54
금융자산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비율 ⁴	19
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비율	49
전문적인 재무상담을 받는 비율	26
일할때 보다 현저히 낮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의 비율	69
3년전보다 그들의 예금을 다 소진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의 비율	50

은퇴 후 삶에 대한 미래 기대

현재 시점에서 근로자들의 현실

60세 이전에 은퇴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	18
성인이 된 자녀와 함께 살것으로 기대하는 비율 ⁵	12
성인이 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기대하는 비율 ²	6
국가연금시스템으로부터 소득을 기대하는 비율 ³	86
금융자산으로부터 소득을 기대하는 비율 ⁴	60
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소득을 기대하는 비율	60
전문적인 재무상담을 받는 비율	39
은퇴했을때 현저히 낮은 소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	52
3년전보다 은퇴를 대비하여 저축을 더 하겠다는 사람들의 비율	21

“은퇴 후 삶
의 도전과제
에 대한 의견”

...에 동의하는 (+)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 응답자의 비율

	+	-
미래의 근로자와 납세자에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지원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68	12
미래의 가족들에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지원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71	10
사람들은 금융서비스회사가 은퇴를 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29	32
정부는 근로자들이 은퇴 준비를 하는데 충분히 돕고 있다.	10	56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

정부의 방향에 대해 응답자들은 아래와 같은 비율로 답변을 나타냈다.

정부는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	75
정부는 정부연금프로그램에 대한 근로자 기여분을 늘려야 한다.	77
정부는 은퇴 연령을 높여야 한다	83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은퇴를 대비하여 저축을 늘리라고 독려해야 한다	85

¹ 이미 성인이 된 자녀를 가지고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의미한다.

² “의존” 은 순전히 자녀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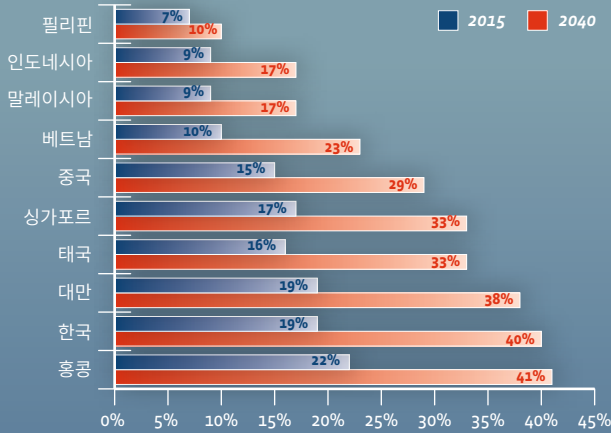
³ 국가 연금 시스템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등을 포함한다.

⁴ 금융자산은 은행예금을 제외한 보험, 연금보험, 주식, 뮤추얼펀드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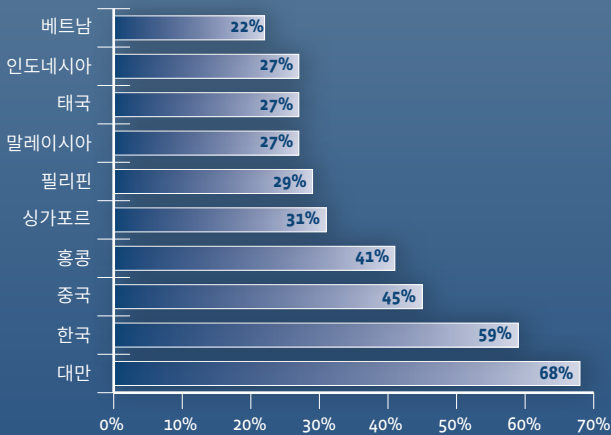
⁵ 자녀를 갖고 있거나 가질 예정인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알림: 위에서 반영된 모든 데이터는 제2차 동아시아 은퇴 서베이 조사결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다만,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부분은 UN인구국 (UN Population Division)에서 발간한 세계인구전망 보고서 2012년 개정판을 참고하였다. “은퇴 후 삶의 도전과제에 대한 의견” 항목에 대한 답변은 5점 척도법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즉,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1로 표기되었고, 강하게 동의한다라는 답변은 5로 표기되었다. 마찬가지로 “동의한다”에 해당하는 답변은 4와 5로, “동의하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답변은 1과 2로 표기되었다.

60세 이상 인구 비율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 독립하고 자립하면 더 행복하다.”



“이상적으로는 누가 은퇴자들을 부양하는 것이 옳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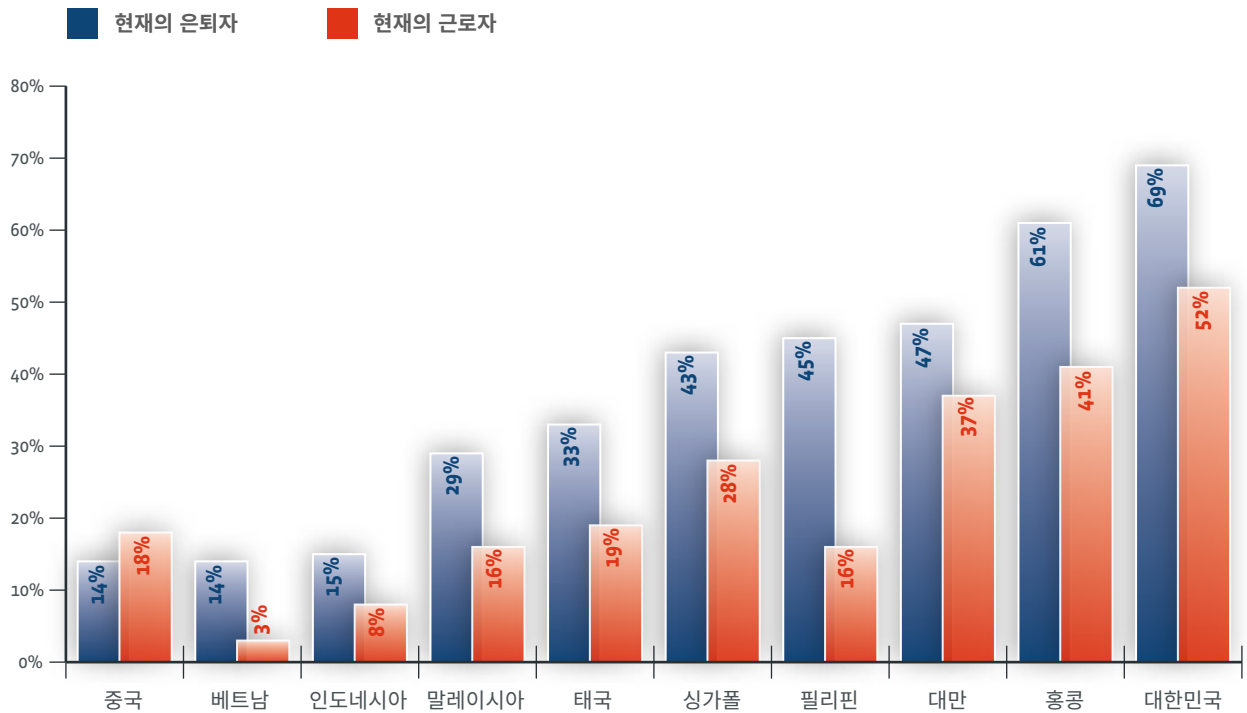
국가별 %의 응답률	정액	은퇴자 스스로	성인이 된 자녀	정 고용주
중국	63	9	11	16
홍콩	41	44	6	8
인도네시아	45	18	11	25
말레이시아	43	34	8	10
필리핀	66	10	8	17
싱가폴	30	48	13	2
대한민국	23	61	10	2
대만	36	40	6	16
태국	66	18	10	4
베트남	62	22	10	5

인은 노후보장으로 개인의 저축을 강력히 지지하는 편이다. 서베이 대상인 여타 국가보다 실제로도 높은 수준의 비율을 보인다. 한국인들이 금융권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도는 비교적 낮지만 금융시장 투자에 대해 점차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 오래 일하려는 신념 또한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잘 맞아 떨어진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는 빈곤 노년층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정년을 연장하며, 근로자의 노후 대비 저축을 장려하는 정부 개혁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은퇴자 실태

한국의 현 은퇴세대는 자신들이 국가발전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노인을 부양하는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이 이미 약화됐음에도 이를 대체할 정부와 시장 대안은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 현 은퇴자 중 성년 자녀와 함께 산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에 그쳤으며 이는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적은 비율이지만,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은퇴자는 17%에 불과했다. 그와 동시에, 현 은퇴자 중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비율은 44%로 보고되었다. 공무원, 군인, 교원 연금을 포함해도 국가연금을 받는 현 은퇴자의 비율은 54%에 그친다. 보험이나 연금 상품 및/또는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로 자산소득을 받는 현 은퇴자의 비율은 19%에 불과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을 제외하면 어떤 국가보다도 적다.

급격한 발전이 노년층보다 청년층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많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노인의 경제적인 소외가 야기되었고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위태로워졌다. 직장 재직 시보다 현재 “소득이 훨씬 적다”고 응답한 현 은퇴자는 69%로 이는 다른 국가보다 높은 비율이다. 노인 가정의 중간소득은 전체 가계 중간소득의 31%에 불과하며 이는 다른 국가보다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저소득 계층 노인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져서, 대략적으로 60세 이



은퇴 후 삶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대한민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일할때 보다 현저히 낮은 소득을 얻고 있다고 답변한 현재 은퇴자들과 은퇴후 현저히 낮은 소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현재 근로자들의 비율

상의 은퇴인구의 반 정도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노인의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현 은퇴자 중에서 3년 전보다 현재 소득이 적다고 응답한 비율은 59%로 싱가포르, 대만, 태국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국가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노후자금 고갈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은 50%, 재취업을 고려하는 비율은 34%이며 둘 다 다른 국가보다 비율이 높다.

미래 은퇴 예상

향후 은퇴세대의 생활수준을 높여줄 장치는 두 가지로 전망된다. 첫 번째는 국가연금 수령자의 급증이다. 현 은퇴자 중 54%만이 국가연금을 받는 반면 현 근로자는 86%가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수령 측면에서만 볼 때 이는 조사 대상국 중 가장 큰 개선사항에 속한다. 두 번째는 자산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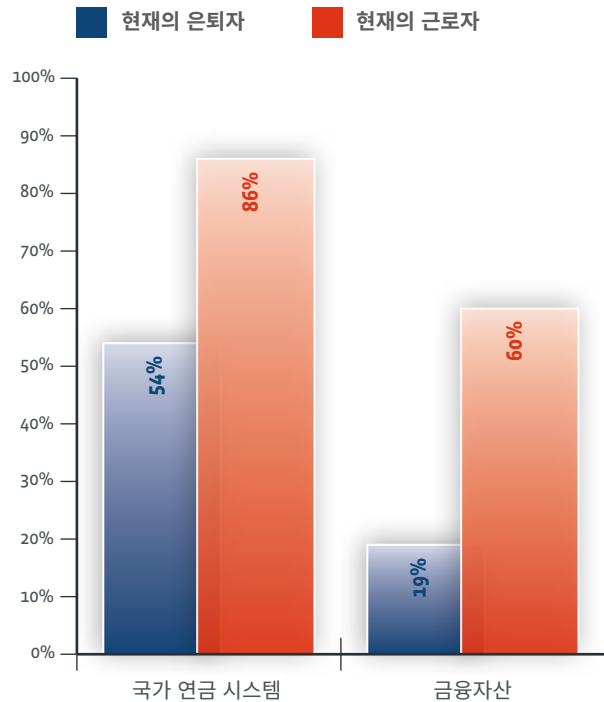
수령자의 급증이다. 현 은퇴자 중에서 보험이나 연금 상품 및/또는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에서 소득을 얻는다고 말한 비율이 19%에 그친 반면 현 근로자의 60%는 은퇴 후 이러한 금융자산소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대상국 중에서 이러한 비율이 가장 큰 것은 아니지만 현 수령자와 비교해본다면 예상 수령자의 증가율은 가장 크다. 평균적으로, 45~55세 한국 직장인의 평균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자산 비율은 3배 이상이며, 이러한 비율은 은퇴 전 몇 년 시기의 소득 대비 자산 비율 측면에서, 다른 조사 대상국보다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 근로자는 자신의 노후에 대해 비관적이다. 은퇴 후에는 현재보다 “소득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52%에 달해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비관주의는 현재의 연금정책 안정성

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현 근로자의 80%(필리핀을 제외한 다른 국가보다 높음)는 정부가 약속된 국가연금급여액을 줄일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불안한 재정과 한국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이러한 우려는 이해되는 부분이다. 또한 회사가 연금급여액을 줄일 것이라고 우려하는 비율은 67%였으며, 필리핀과 태국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국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노후 비관주의는 노년 빈곤을 막는 전통적인 방어벽이었던 가족부양 네트워크의 붕괴로도 일부 뒷받침된다.

가족 역할의 변화

국가가 발전하고 현대화되면 일반적으로 노후보장에서 가족이 맡은 역할이 축소된다. 이런 현상은 동아시아 어느 곳보다도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 독립하고 자립하면 더 행복하다”에 동의한 한국인 비율은 응답자 중 59%였으며, 대만을 제외하면 조사국 중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았다. 노인 중 23%만이 성년자녀와 동거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한국 다음으로 적은 비율을 보인 중국과 말레이시아보다도 절반이나 낮았다. 현 근로자 중에서 은퇴 후에도 성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어 한 비율은 12%에 그쳐 조사대상 다른 국가보다 1/3 이상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는 많은 서구 국가의 다세대 동거율보다 낮았다. 이미 오늘날, 자녀들을 위해 재정적인 후원을 제공하는 순수한 부양자로서 보고된 은퇴인구와 꼭 같은 숫자가 순수한 피부양자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쇠한 가족 구성원을 가족이 보살펴줄 것이라는 기대조차 점차 사라지고 있다. 현 근로자 중에서 은퇴 후 아프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일상생활에서도움이 필요할 때 성년자녀 또는 그들의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보살펴 줄 것이라 예상하는 비율은 47%에 불과했다. 다른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대만을 제외하고, 이 비율은 적어도 75%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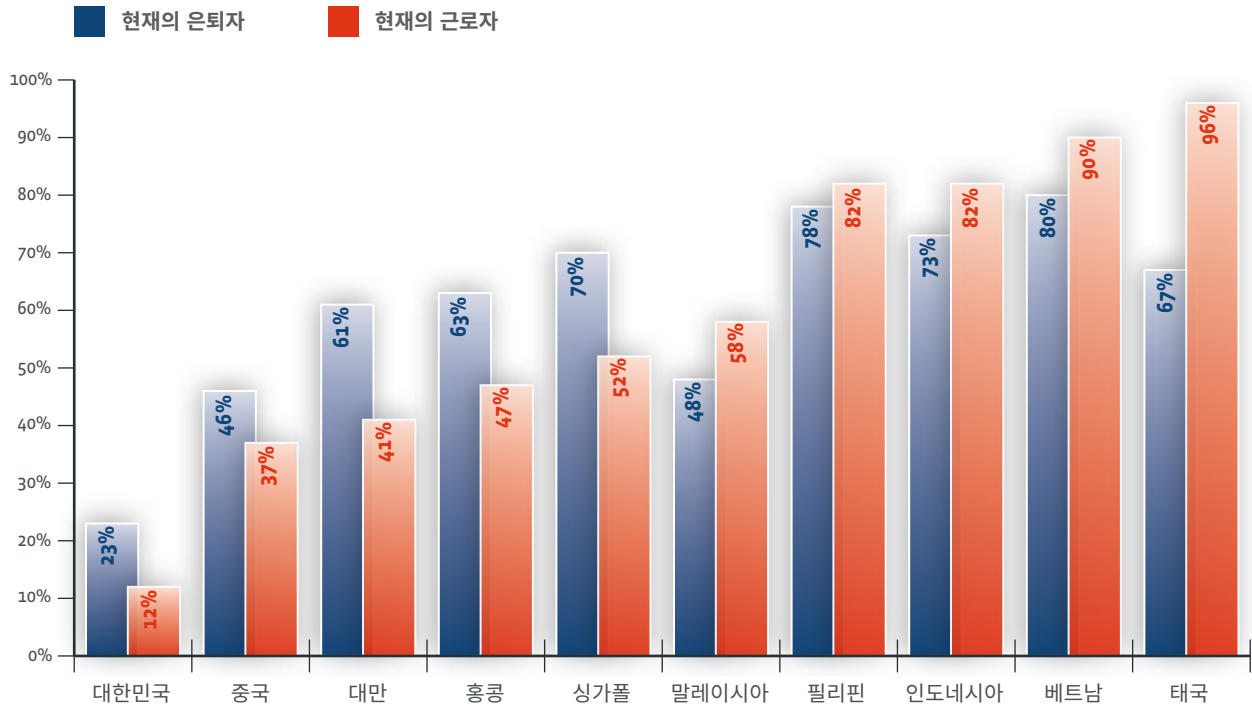


현재의 근로자들이 은퇴했을 때 연금 및 자산으로부터 소득을 수령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국가연금시스템 및 금융자산으로부터 소득을 얻고 있다고 응답한 현재의 은퇴자 비율 VS. 그것들로부터 소득을 기대한다고 답변한 현재의 근로자 비율

한편, 한국의 가족부양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복구될 것이라는 조짐도 있다. 응답자의 10%에 불과하지만, 은퇴자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주체는 대부분 가족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2011년에 진행된 제1차 서베이 때보다 두 배 늘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가진 인식의 변화 덕택이다.

가족이 노쇠한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역할을 대부분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 응답자의 비율 역시 첫 번째 서베이 이래 증가해왔다. 한편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제1차 서베이에서는 놀랍게도 응답자의 20%가 노인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 “대개 부담



* 성년이 된 자녀를 갖고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의미한다.
 ** 자녀를 갖고 있거나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은퇴 후 삶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기능으로서 가족의 역할이 급속하게 후퇴하고 있다.

성년이 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현재의 은퇴자 비율과 은퇴 후 성장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기대하는 현재의 근로자 비율

이 된다”에 동의했다. 제2차 서베이에서는 그 비율이 10%로 떨어졌고 젊은 층에서 다시 한 번 가장 많은 태도 변화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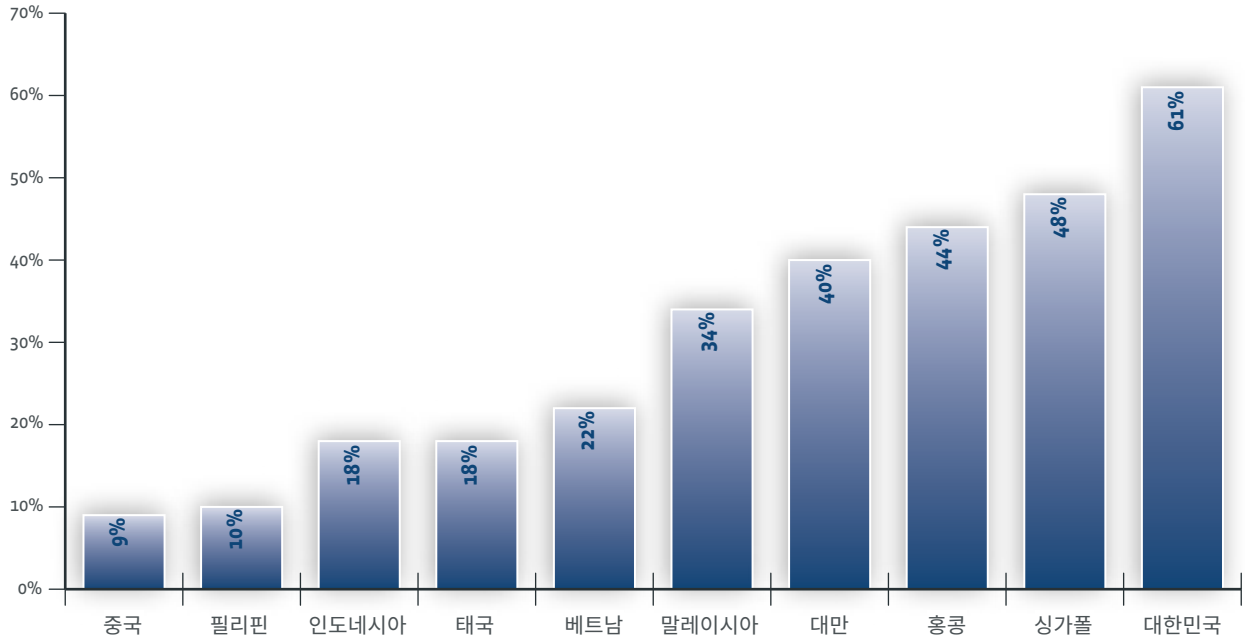
노후보장의 책임

압도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노후보장의 책임 주체를 개인이라고 믿는다. “은퇴자에게 소득을 제공해야 하는 이상적인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은퇴자 본인이 본인 노후자금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한 응답자가 61%인 반면 “정부”라고 답한 비율은 23%에 그쳤다. 한국은 개인이 노후소득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비율이 다른 국가보다 높을 뿐 아니라 제1차 서베이 이후에는 이 비율이 상당히 올

라가기도 했다. 지지기반 또한 광범위하다. 노후소득의 개인 책임론 지지율은 소득에 따라 높아지는 하나 한국인들은 소득과 상관없이 이를 선호하며 심지어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정부보다는 개인적 책임을 선호한다.

금융시장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태도

한국인들은 점점 더 시장 지향성이 되어가지만,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노후자금 투자방법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았다고 응답한 한국인들의 비율은 동 아시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 틀림없다. 전문적인 금융 상



대한민국 사람들은 은퇴 후 소득을 얻는데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그들 스스로의 개인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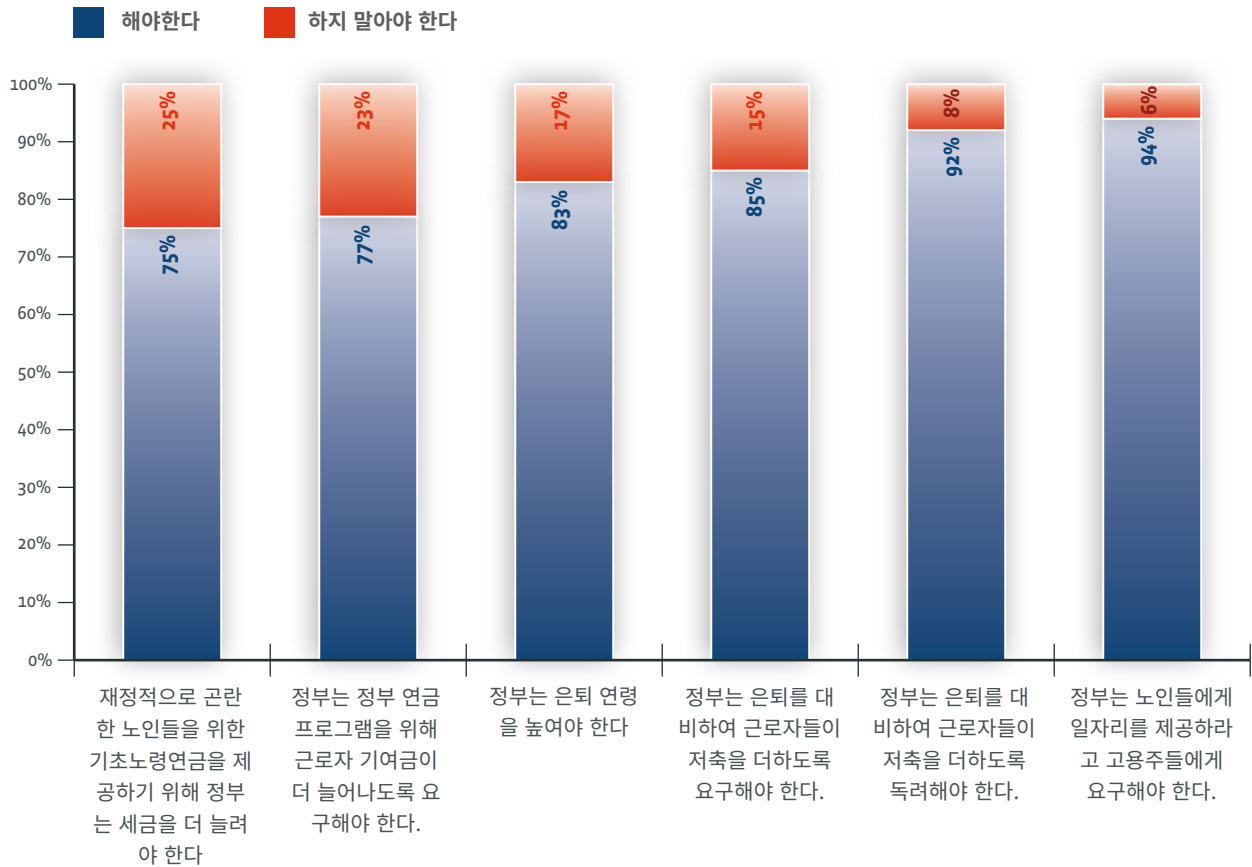
은퇴자들에게 누가 소득을 제공해야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은퇴자 스스로 그들의 예금을 통해” 대부분 그들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비율

답을 받았다고 답변한 현 은퇴자와 현 근로자는 각각 26%, 39%였으며, 현 은퇴자의 경우에는 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보다 비율이 높았고, 현 근로자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국가보다 높았다. 그러나 상담을 받은 은퇴자와 근로자 중에서 상담이 유익하다고 생각한 비율은 각각 45%, 60%에 그쳐 다른 국가보다 훨씬 적게 나타났다. “노후자금 투자방법 결정권자는 주로 투자 전문가가여야 한다”라고 한 한국인은 극소수(13%)에 불과했다. “금융 서비스 회사가 노후대비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가?”라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가 동의한 응답자보다 약간 더 많았다. 반면 홍콩과 대만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에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동의하지 않는 비율보다 높았다. 한국인들이 금융시

장에 참여하는 수준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한국인들의 태도 역시 변화하고 있지만,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인들의 의견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

직업과 은퇴에 대한 태도

자신의 노후보장을 기꺼이 책임지겠다는 한국 개개인의 의지와 더불어, 확고한 직업의식도 한국이 직면해 있는 은퇴 관련 문제에 맞서는 데 큰 힘으로 작용한다. “정년 은퇴 후 일하지 않겠다”는 한국인은 6%인 반면 “할 수 있는 한 계속 일하겠다” 혹은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일을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93%였다. 현 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은퇴 제도 개혁에 관해 생각하고 있는 것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은퇴제도 개혁을 위해 정부가 해야한다고 또는 하지 말아야한다고 대답한 비율

퇴자는 66%가 그들이 60세 생일을 맞기 전에 은퇴했다고 응답했지만 현 근로자 중에서 이처럼 일찍 은퇴하려는 비율은 18%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홍콩과 필리핀을 제외한 다른 국가보다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25%라는 많은 수의 현 근로자들은 절대로 은퇴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이 10% 이상인 국가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뿐이다.

역경을 기회로

한국인이 개인의 향후 노후생활만 염려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인구 고령화가 국가 번영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걱정한다.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부

양은 미래의 근로자와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에 동의하거나 강하게 동의한 한국인은 68%에 달했다. 반면, 오직 12%만이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거나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는 비율은 동의하지 않은 비율보다 6배 이상 높으며, 이는 한국 다음으로 비관적인 국가인 대만과도 두 배의 차이가 난다.

한편 한국인들의 71%가 “증가하는 노인의 부양은 미래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된다”에 동의하거나 강하게 동의하였다. 반면, 오직 10%만이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하는 비율이 동의하지 않은 비율보다 7배 이상 높아 그 차이가 더 명확하다. 한국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생활수준 향상에 대

한 기대감이 서서히 사라지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새로운 세대 근로자의 생활수준은 기성세대보다 높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와 동의한 응답자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새로운 세대 은퇴자는 기성세대보다 좀더 편안한 은퇴 후 삶을 가질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가 동의한 사람보다 약 두 배 많았다. 다른 모든 국가에서는 향후 은퇴자의 생활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는데 동의한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를 적어도 2:1 비율로 초과했다.

한편, 은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다른 곳보다 큰 만큼 한국에서는 건설적인 대책을 지지하는 수준도 높다. “정부의 노후대비 근로자 지원이 불충분하다”라고 여기는 한국인은 6:1의 비율 차이를 보인다. 정부가 “세금인상을 통해 빈곤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해야 한다”에 응답자 75%가 찬성했으며 이는 조사 대상국 중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비율이었다. 또한, 정부가 “국가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부담금을 인상해야 한다”에 응답자 77%가 찬성해 다시 한 번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정부의 “정년 연장 방안”에 찬성한 응답자는 83%로 국가 중 단연 높았고, “고용주의 노인 고용 의무화”에는 94%가 찬성했다. 한국인 대다수는 근로자 노후대비 저축 장려 혹은 의무화 하는 정부의 선제적인 움직임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제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의 안정성에 있어 개인적 책임을 강력히 지지하는 국민, 일과 은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개인적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대폭적인 개혁 문제를 포용하려는 의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참고사항

제2차 동아시아 은퇴 서베이는 세계고령화연구소(GAI)가 고안했으며 2014년 여름, 세계적 서베이 회사인 입소스 옵저버(Ipsos Observer)가 진행했다. 서베이는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에서 실시되었다. 모든 서베이 표본은 전국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집단이지만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도시지역으로 제한하였다. 인터뷰는 유선으로 진행했으나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한해 대면으로 진행했다. 서베이 대상은 가구 구성원 중 20세 이상인 “주요 소득자”로 현 주요 소득자와 은퇴한 주요 소득자가 포함된다. 세계고령화연구소는 인구조사 자료와 기타 국내외 기본 통계자료를 사용해 원 조사 데이터에 연령별, 성

표본크기와 오차 범위

	표본 크기	오차 범위(±)*
중국	1512	2.5
홍콩	749	3.6
인도네시아	1023	3.1
말레이시아	990	3.1
필리핀	997	3.1
싱가포르	750	3.6
한국	997	3.1
대만	998	3.1
태국	1008	3.1
베트남	995	3.1

* 95% 신뢰 수준의 오차 범위

별, 학력별 가중치를 두었다. 서베이 분석은 SPSS 통계 소프트웨어로 실시했다.

조사대상 10개국 중 7개 나라의 표본 크기는, 작게는 990명에서 많게는 1,023명에 달한다. 중국에서는 1,512명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홍콩과 싱가포르

는 각각 749명과 750명이 서베이에 참여하였다.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낮게는 중국의 경우 $\pm 2.5\%$ 포인트, 높게는 홍콩 및 싱가포르의 경우 $\pm 3.6\%$ 포인트 사이이다.

용어 사전

노인: 본 보고서에 나온 노인은 60세 이상의 성인을 말한다.

금융자산: 본 보고서에 나온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보험이나 연금 상품 및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를 가리킨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은행 예금은 제외된다.

적립식 연금: 적립식 연금은 현 근로자의 부담금을 저축하고 투자해서 축적한 자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계소득: 가계소득은 가족 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말한다. 다세대 가정 은퇴자의 경우, 그러므로 성년 자녀의 소득도 포함한다.

시장 지향성: 본 보고서에 나온 시장 지향성이란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시장 지향 국가 혹은 사회란 국민 대부분 또는 상당수가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자산 조사 결과에 따른 지급방식 프로그램: 자산 조사 결과에 따른 지급방식이란 소득이나 자산이 특정한도 이하인 사람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정부 사회복지제도이다.

부과식 연금: 부과식 연금은 현 근로자의 부담금으로 현 은퇴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체율: 대체율이란 은퇴 직전 연도의 근로자 소득 중 연금 급여로 대체되는 비율을 말한다. 급여가 월부가 아닌 일시불로 지급되는 경우 마지막 봉급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가리킨다.

은퇴자 및 근로자: “오늘날의 은퇴자”와 “오늘날의 근로자”라고 명명된 조사대상자들은 응답자 스스로 본인들의 상태를 평가하여 둘 중의 하나로 구분한 것을 기초로 하였다. 응답자들은 은퇴의 의미란, “더 이상 일하지 않거나, 그들이 젊었을 때보다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 있거나, 다시는 상근직으로 일할 계획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런 연후, 그들이 ‘현재 은퇴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응답하였다.

국가연금제도: 본 보고서에 나오는 국가연금제도는 용어는, 정부에서 제정과 규제를 담당하는 모든 종류의 의무 연금제도가 노후자금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기여형이며, 자산 조사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 한국의 국가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군인 연금 등이 있다.

저자 소개

리처드 잭슨 (Richard Jackson) 세계고령화연구소 (GAI)의 창립자이자 소장이다. 세계고령화연구소는,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 특히 인구노령화가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지정학적 변화를 수반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설립된 비영리 연구 및 교육기관이다. 또한 그는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CSIS)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콘코드 코얼리션에서 선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리처드는 다음과 같은 저서에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미국 복지권 논쟁에 대한 해외로 부터의 교훈 (2014); 글로벌 노령화 준비 지수, 개정 2판 (2013); 전통과 근대화의 균형: 동아시아 은퇴의 미래 (2012); 글로벌 노령화와 신흥시장의 미래 (2011); 위대한 열강들의 노령화 - 21세기 인구통계학 및 지정학 (2008). 리처드는 정기적으로 인구통계학적인 이슈들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고, 언론에서 이 분야를 다룰 때 폭넓게 언급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미국 버지니아 주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내인 페린 여사와 세 자녀 (벤자민, 브라이언, 페넬로페)와 함께 살고 있다.

토비아스 피터 (Tobias Peter) 세계고령화연구소의 연구위원이다. 그는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리처드 잭슨과 함께 글로벌 노령화 관련 업무를 함께 일했다. 그는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인턴을 거쳐, 연구보조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일한 바 있다. 토비아스는 다음 몇몇의 공공연구에서 공동저자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다; 고령화된 세계에서 미국의 개발 정책 - 새로운 인구통계학 시대에 새로운 도전 및 새로운 우선순위들 (2013); 글로벌 노령화 준비 지수 - 개정 2판 (2013); 전통과 근대화의 균형: 동아시아 은퇴의 미래 (2012); 그는 성 스킨 대학에서 역사와 응용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하버드 대학 존 F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 분야 석사 학위를 받았다.

세계고령화연구소 소개

비영리 연구교육기관인 세계고령화연구소(GAI)는 세계 고령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정책 담당자와 대중에게 알려 시의적절하고 건설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소에서는 노후보장에서부터 국가안보까지 모든 것을 망라하여 다루고 있으며 국제적인 시야를 갖추어 전세계 고령화 사회에까지 미치고 있다.

2014년에 설립된 GAI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신생 연구소이나 수행 임무만큼은 그렇지 않다. GAI 설립 전, 리처드 잭슨 소장은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세계 고령화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을 지휘했다. 약 15년에 걸쳐 최첨단 연구분석 거대 데이터를 산출해냈다. 본 데이터는 ‘무엇이 21세기 문제점이라 정의되는가’에 대한 논쟁의 불씨가 되어왔다. GAI의 이사회 의장은 테리그룹 (Terry Group)의 최고경영자이자 전(前) 미국보험계리인학회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 토마스 S. 테리 (Thomas S. Terry) 회장이다. 세계고령화연구소(GA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GlobalAgingInstitute.org)를 참조한다.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은 USD 134 billion (한화 약 160 조, 2015년 6월 말 기준)의 기관 및 리테일 투자자들의 자산을 운용하는 아시아 대표 자산운용사입니다. 1994년 설립된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서비스 그룹인 영국 Prudential plc의 아시아 자산운용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시아 10개국, 미국, 유럽, 그리고 UAE 등지의 현지에서 2,500명의 직원과 250명 이상의 투자 전문가로 구성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겨온 자산운용사 중 하나입니다. 저희의 뛰어난 투자지식과 각 지역에 대한 통찰력은 고객들에게 특별하고 고객별 맞춤형의 투자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저희는 주식, 채권, 글로벌 자산배분, 메자닌 채권, 사모채권, 인프라 투자 등의 다양한 자산에 걸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스트스프링 자산운용은 2014년 Asia Asset Management에서 실시한 서베이에서 아시아의 가장 큰 리테일 자산운용사로 선정되었고, 동 기관에서 2014년 ‘베스트 아시아 자산운용사’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 있습니다.



www.GlobalAgingInstitute.org



www.eastspring.com